첨단기술 '카투홈' 탑재…3000만원대 IoT 세단 등장

〈Car to Home〉

기아차 신차급 'K7 프리미어' 출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엔진 장착
전장 더 길어지고 고급스럽고 편해
사전 계약 8000대 넘겨 흥행 예고

기아자동차가 24일 준대형 세단 'K7 프리미어' 가격을 확정하고 정식 출시했다. 차명은 'K7'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차세대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차급으로 대변신했다. 그래서 'K7 프리미어'다.

기아차는 고객 수요에 맞춰 K7 프리미어를 2.5가솔린, 3.0가솔린, 2.4하이브리드, 2.2디젤, 3.0LPi 등 모두 5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동시에 출시했다.

기아차 처음으로 '스마트스트림 G2.5 GDi' 엔진을 적용한 2.5가솔린 모델은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려 최고출력 198마력, 최대토크 25.3㎏·m에 복합연비 11.9㎞/ℓ(17인치 타이어 기준)를 달성했다. 이 엔진은 기통당 간접분사(MPI) 인젝터와 직접분사(GDi) 인젝터를 동시에 적용해 운전 조건에 따라 최적의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연비가 기존 2.4 가솔린 모델(11.2㎞/ℓ)보다 향상됐다.

3.0가솔린 모델의 6기통(V6) 엔진은 최고출력 266마력에 최대토크 31.4㎏·m의 동력성능을 내며 조향장치는 'R-MDPS(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가 적용됐다.

국산 준대형 세단 가운데 유일하게 디젤 엔진을 탑재한 2.2디젤 모델은 최고출력 202마력에 최대토크 45.0㎏·m을 달성했으며, 2.4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연비 16.2㎞/ℓ(17인치 타이어 기준)를 달성했고 전기차(EV) 모드의 정숙성도 갖췄다.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3.0 LPi 모델은 최고출력 235마력에 최대토크 28.6㎏·m의 힘을 낸다.

K7 프리미어는 전장이 4995mm로 기존보다 25mm 길어졌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커졌다. 뒷면의 좌우 리어램프를 연결한 점선 모양의 라이팅이 새롭게 디자인됐다.

최신 모델인 만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편의사양도 대폭 강화됐다.

방향 지시등을 켜면 후측방 영상을 클러스터(계기판)에 표시하는 '후측방 모니터(BVM)'를 비롯해 차선과 앞차를 인식해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제어하는 '차로 유지 보조(LFA)' 내비게이션과 연동한 '외부공기 유입방지 제어' 기능이 국산 동급 최초로 적용됐다.

또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12.3인치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과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전자식 변속레버(SBW) 등이 탑재됐다.

차량과 집을 쌍방향으로 연결하는 '카투홈·홈투카(Car to Home·Home to Car)' 기능은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차 안에서 조명이나 에어컨 등 집 안의 홈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집에서도 차량의 시동을 걸거나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다.

K7 프리미어는 지난 12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이후 영업일 기준 8일간 8023대의 계약을 기록해 흥행을 예고했다. 특히, 부분변경 모델이 신차를 넘어서는 사전계약 실적을 달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09년 1세대 K7 출시 때는 16영업일 간 8000여대를, 2016년 2세대 출시 때는 10영업일 간 7500여대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사전계약에서는 기존 엔트리급에서는 선택할 수 없었던 모니터링팩(서라운드뷰 모니터 등)과 헤드업디스플레이(HUD) 등 고급 사양이 포함된 옵션 패키지를 선택한 고객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ADAS를 포함한 옵션 패키지 선택 비율도 70%를 넘겨 '반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가격은 ▲2.5가솔린 프레스티지 3102만원, 노블레스 3367만원 ▲3.0가솔린 노블레스 3593만원, 시그니처 3799만원 ▲2.4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3622만원, 노블레스 3799만원, 시그니처 4015만원 ▲2.2디젤 프레스티지 3583만원, 노블레스 3760만원 ▲3.0 LPi(일반) 프레스티지 3094만원, 노블레스 3586만원, 3.0LPi(면세) 2595만~3430만원 등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름휴가 가기 전 요소수 잔량 확인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한 장거리 운전을 위한 요소수 잔량 확인이 요구된다.

24일 롯데정밀화학에 따르면 요소수가 부족하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고 보충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대부분의 차종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또 요소수 없이 계속 주행할 경우 대기 중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이 노출돼 환경이 오염되며, 고가의 SCR(선택적 촉매 감소) 장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트렁크에 상비용으로 싣고 다녀도 부담 없는 요소수 제품이 나왔다. 장거리 여행 시 상비용으로 차량 내에 구비하기 좋은 크기로, 요소수 부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언제 어디서든 요소수를 주입할 수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정품 요소수 사용도 권장했다.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요소수를 주입하면 장기적으로 고가의 차량 부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조용한 택시' 프랑스 칸 광고제 은사자상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용한 택시' 영상이 프랑스 칸 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자동차 업계 최초다.

현대차그룹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 축제인 '2019 칸 라이언즈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은사자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조용한 택시' 영상의 한 장면.

'조용한 택시' 영상은 앞서 지난달 '2019 뉴욕 페스티벌'에서도 동상 4개(PR·이노베이션·필름·베스트 유스 부문)를 수상했고, 미국 원쇼 광고제에서도 동상을 받았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캠페인 영상이다.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소리 정보를 시각과 촉각으로 바꿔 전달하는 감각 변환(ATC)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일반 자동차 경적 소리를 구분해서 전방표시장치(헤드업디스플레이·HUD)에 이미지와 함께 차량의 방향 정보까지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영상은 서울시 1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인 이대호씨가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 씨는 경적이나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해 오해를 사거나 운전할 때 시각 집중도가 너무 높아서 힘들어했고, 이런 모습에 속상해하던 이 씨의 딸이 사연을 보내면서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조용한 택시' 프로젝트는 2017년 현대차그룹 연구개발(R&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차량 주행 지원 시스템이 바탕이 됐다. 영상은 현대차그룹 유튜브(http://bitly.kr/kcN7tq)에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공개된 후 누적 조회수 약 1560만 회를 기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기차 주행중 무선충전' 한국이 표준화 주도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전기차를 주행하면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한국이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차 주행중 무선충전 국제표준화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10여개국 전기차 충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전기차 주행중 무선충전시스템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 국제표준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논의된 국제표준안은 KAIST 윤우열 교수가 작년 11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 올해 3월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작업과제로 채택된 것이다.

국제표준 제정의 목적은 전기자동차를 주행하면서 무선충전하는 경우 차량과 인프라 간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차량 및 탑승자를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주행중 무선충전의 상호호환성과 안전성을 위한 도로 매설 코일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은 타원형코일방식, 미국은 원형코일방식, 프랑스는 더블디코일방식 등을 국제표준안에 반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6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7월1일까지 납부하세요"

모든 차량 소유자들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는 납기 마감일인 6월30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인 7월1일까지 내면 된다.

7월 2일~31일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